

책머리



River & Culture

생명의 어머니, 물



김진영 | 우리협회 감사 / 인천광역시 정무부시장

물은 생명의 근원, 갈증 끝에 마시는 한 모금의 물이야말로 생존의 시작이다. 해갈은 생명의 땃줄이다. 그 무엇으로도 설명할 수 없는 충족감과 마시는 순간 단번에 몸과 마음을 시원하게 해준다.

사람 중에도 마음속에 사랑의 샘을 가진 사람이 있다. 마더 테레사 같은 사람 말이다. 이러한 성인들 말고라도 마음속에 샘이 있는 사람의 대표가 바로 어머니일 것이다. 해서 사람들이 힘들고 괴로우면 누구나 고향을 찾듯 어머니 품을 찾는 것이 아닐까.

물과 어머니를 별개로 생각할 수 없는 이유 중 하나가 우리들은 어머니 뱃속 양수 속에서 태어났기 때문이다. 어머니를 생각하면 누구나 자신도 모르게 눈물을 흘린다. 모성의 눈물을 먹고 자랐기 때문이다.

일상을 살면서 실패를 했거나 헛수고를 했을 때에 물거품이 되었다고 표현을 한다. 액체가 변질되면 한 현상으로 표면에 거품이 고이기 때문에 그리 말하는 것이리라. 물에 거품이 있으면 이미 상하고 부패해서 생명의 근원성을 상실했으니 오염된 물은 무용지물이다. 해서 영원히 변치 않고 흐르는 물, 물은 한결같은 사랑을 상징하며 어머니로 표현하는데 무리가 없다고 본다.

구름 빛이 좋다하나 검기를 자로 한다.
바람소리 맑다하나 그칠 적이 하노매라
좋고도 그칠 뉘 없기는 물뿐인가 하노라

윤선도의 시를 음미해 본다. 바람도 구름도 좋으나 좋고도 그칠 뉘 없는 물에 대한 시인의 물 사랑이 절절하다.

그렇다고 물이 마냥 좋고 온유하지만은 않다. 쓰나미로 인도네시아의 해변이 초토화되고 수많은 생명이 유명을 달리한 것을 기억하면서 물이 너무 두렵기까지 하다.

이 경우를 상상하여 만든 '해운대'라는 영화가 얼마 전 상영되면서 우리나라도 안전지대가 아닌을 경각시켰지만 물로 인한 자연재해를 인간의 가슴속에 있는 사랑의 샘물이 능히 이겨낼 수 있을을 잘 보여준 영화였다. 해서 물을 두렵기보다는 은혜의 물질로 여기며 많은 시인들이 어머니, 깊은, 힘, 지혜 등등으로 상징하며 물의 위대성을 크게 찬양하고 있다.

물은 쉬지 않는 순환으로 기후에 대항하지 않고 겸손하게 순응하며, 구름이 되었다가 다시 생명을 부여하는 물로 이 땅에 내려와 비와 이슬이 된다. 사람이 댐을 만들어 자신을 막으면 조용히 고여 있고, 길을 열어주면 그 길 따라 흐르며 먼저 흘러가려고 애쓰지도 않는다. 물은 싸움과 경쟁을 모른다.

물이 없다면 이 지구 위에 어떤 사물도 존재할 수 없다. 우리의 옛 선조들도 좋은 물을 귀하게 여기며 지역별로 청정수를 찾아 나섰다. 오대산의 우통수, 속리산의 삼타수, 충주의 달천물을 으뜸으로 꼽아 이 땅에서 가장 좋은 물로 칭송하였다.

그 중 하나인 충주가 충주호로 유명하여 해마다 백만 명이 넘는 관광객이 다녀간다고 한다. 금수산 위로 햇살이 비치면 물빛은 물론 호수 주변의 산들이 형형색색으로 단장하여 보는 이의 탄성을 자아내게 한다. 먹는 물이 청정수임은 물론이고 고여 있는 호수의 물까지 뱃길을 가르며 우륵의 가야금 타는 소리를 내며 사람의 심금을 울리기도 한다. 맛도 향기도 빛깔도 없는 물질이...

어느 시인의 말처럼 물은 참으로 어진 존재이다. 물이 우리에게 끼치는 은덕이야말로 참으로 크고 높다 아니할 수 없다. 빗물로 강물로 흐르고 흘러 최후에 넓고 깊은 바다로 모인 그들이 수천 종류의 해초와 물고기를 길러내니 생명을 주는 물은 그 본질을 바꾸지 않는다.

정월, 물이 눈으로 변해서 대지로 내려온다. 가물어 메마른 세상에 흰 눈으로 변한 물이 우리에게 축복을 약속하든 마음까지 긴 역사의 수레바퀴를 따라 영원히 변하지 않는 모성, 그 진리를 물에서 찾아본다. 